



3면

국힘 이준석·배현진 '정면충돌'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음 5월 23일) 제3040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 국제행사 유치 '젠걸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학술대회·포럼 등 하반기 개최 내년 열릴 아태 마스터스·새만금잼버리에도 관심 요청

전북도는 20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국제행사 동향 및 유치 사례 공유회'를 11개 기관과 함께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유치 사례 공유회는 국립무형유산원 임승범 학예연구관의 전북지역 무형 유산에 대한 소개, 한국관광공사 박정웅 전북지사장의 한국관광공사의 역할과 전북도에 적합한 국제행사 제안, 전북문화관광재단 김현 관광진흥본부장의 전라북도와의 재단이 함께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국제행사 발표, 코로나 이후 적합한 국제행사 유치 시기, 방법, 대상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임승범 학예연구관은 국제행사 관계자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와 소양 함양을 위한 무형 유산에 대한 소

개의 시간을 가졌으며, 박정웅 전북지사장은 "한국관광공사는 지자체의 국제행사 유치·개최에 다양한 정보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최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전북도 농업, 식품, 문화유산 등 강점을 활용한 국제행사 유치가 필요하며, 앞으로 도·내 국제행사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여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문화관광재단 김현 본부장은 "최근 관광분야에 사회적 이슈인 관광지를 보존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속 가능한 관광 국제행사 유치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7월 중 유치를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아태, 잼버리 등 국제행

사 유치 사례 및 자연유산, 농생명 등 산업 생태계,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전북이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개최에 뛰어난 역량과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총평과 함께 도가 유치계획하고 있는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협력에 의견을 같이 했다.

전북도는 그간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아태 마스터스 대회, 세계잼버리대회까지 지속적으로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여 도민의 자존감 향상 및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내부 도로 등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

도 김영민 국제협력과장은 "도내 국제행사 관련 11개 기관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듣고 관련 행사를 공유하는 등 우리도 국제행사 유치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SOC 시설 구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는 20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국제행사 동향 및 유치 사례 공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유회에서 전북 지역 무형 유산에 대한 소개, 한국관광공사의 역할, 전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함께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국제행사 진행 상황 발표 등이 이뤄졌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물가·민생에 선제대응 필요"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 "내달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시급" 인수위 위원들과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현장 방문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은 입장문을 통해 물가 상승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7월 초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은 유류비 등 물가 상승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경제고통지수가 2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6월 말부터는 장마와 집중호우가 예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의 난국을 선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급히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당선인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어떤 정치적



의제도 민생을 우선할 수 없다. 정치의 시작은 국민의 열망이며, 정치의 끝은 더 나은 국민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인은 7월 1일 신임 도지사 취임 직후, 중앙 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민생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미리 협의를 시작해 신속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국민을 책임지는 행보를 시작해야 하며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도정을 이행해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김관영 당선인·리승용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농생명산업지원

단장과 IT팀 일원은 20일 첫 번째 민생·경제 현장 방문 일환으로 장수군 동물위생시험소와 거점소독시설 등을 찾아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등을 점검했다.

이날 김 당선인과 인수위 위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고위험지역인 동부권(무주, 진안, 장수)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양돈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을 연중 상시 소독하는 장수 거점소독시설을 점검했으며, 직접 축산차량을 소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휴일 없는 방역 활동으로 피로가 누적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철저한 방역활동을 부탁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 시 신속한 정밀검사와 발생 원인 파악 등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장수 소재 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해 점검하고 신속한 진단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내년 국가예산 확보 정치권·시군과 공조

도, 오늘 군산 시작으로 지역별 예산 확보 간담회 열기로 전북 국회의원·도내 기초단체장 당선인들과 현안 공유

전북도가 내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의 해법을 찾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권·도·시군의 공조를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해 21일부터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당선인, 전북도가 함께하는 지역별 국가예산 확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1일 군산지역을 시작으로 27일 김제·부안지역, 28일 정읍·고창, 30일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지역별로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

전주, 익산, 남원·임실·순창 지역은 현재 일정 협의 중에 있다.

시·군정 운영방향 공유, 2023년 정부예산안 기재부 심의동향과 대응방안, 지역별 2023년 국가예산 중점사업 확보 전략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올해는 새정부 출범으로 정부 정책 방향에 많은 변화가 있고 각 시·군도

민생8기 출범을 앞두고 있어 시·군정 운영방향과 중점사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전북도는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본격적인 국가예산 확보전에 나서기 앞서 우선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정치권·도·시군간 공감대 형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군별 주요사업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현재 2023년 국가예산은 중앙부처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고, 기획재정부의 1차 심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올해는 국정과제 등 필수 투자 소요 재원마련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북도는 이번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기재부 심의 동향을 공유하고 부처 예산안 과소·미반영 사업들이 기재

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시군과 함께 삼각 공조체제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정부예산안 최대 반영을 위해 지휘부를 중심으로한 총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당장 다음 주 예정 되어 있는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에 행정부지사가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북도 중점사업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고, 7월 도지사 임기가 시작되면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한 각 실국에서는 과소·미반영 사업들이 기획재정부 1차 심의에서 쟁점 사업으로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기재부 담당사무관 및 과장을 대상으로 설명활동을 수시 진행할 계획이며, 도 지휘부는 기재부 예산실장을 비롯하여 예산편성의 핵심축인 심의관들을 만나 정부예산안에 전북도 중점사업을 담겨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전북개발공사

언제나 도민과 함께 전북개발공사

풍요와 희망이 넘치는 전라북도를 위해 전북개발공사가 있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